

한미 관세협상 타결

주요 품목 관세 인하 및 불확실성 해소



상호관세 **15%로 인하**
(8.7일부터 시행 중)



자동차·부품, 목재제품
232조 관세 → **최대 15%**



의약품 232조 관세
→ 부과시 **최대 15%**



반도체 232조 관세
→ 부과시 **대만 대비
불리하지 않은 수준**



특정 항공기·부품
→ **무관세**



제네릭의약품, 일부 천연자원
→ 상호관세 면제



전략산업 투자
2,000억불



조선협력 투자
1,500억불

기대효과

우리 경제·대미 수출 불확실성 완화

- 자동차·의약품 관세 15% 확보
- 반도체 관세도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 확보
- 목재 제품, 일부 천연자원 등 관세 인하·철폐 추가 확보

원금 회수가능성 제고 장치 마련

-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
- 협의위원회(위원장: 韓 산업부장관)가 미측에 사업 추천
- 위험통합관리(risk-pooling) 구조 마련

외환시장 부담 경감

- 전략산업 투자 미측 요구 대비 43% 축소(3,500→2,000억불)
- 연간 200억불 한도 설정, 납입시기·금액 조정 요청 가능
- 사업 진척정도에 따라 투자금 납입

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확대 기반 마련

- 연방토지·전력·용수·구매계약 등 미측 지원
- 한국 업체 우선 선정, 한국 추천 프로젝트 매니저 채용
- 우리 기업 주도로 한미 조선협력(MASGA) 추진

